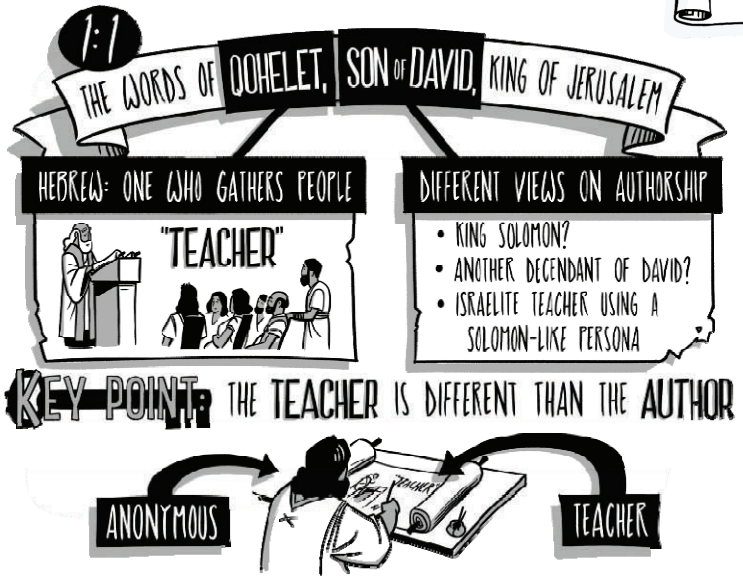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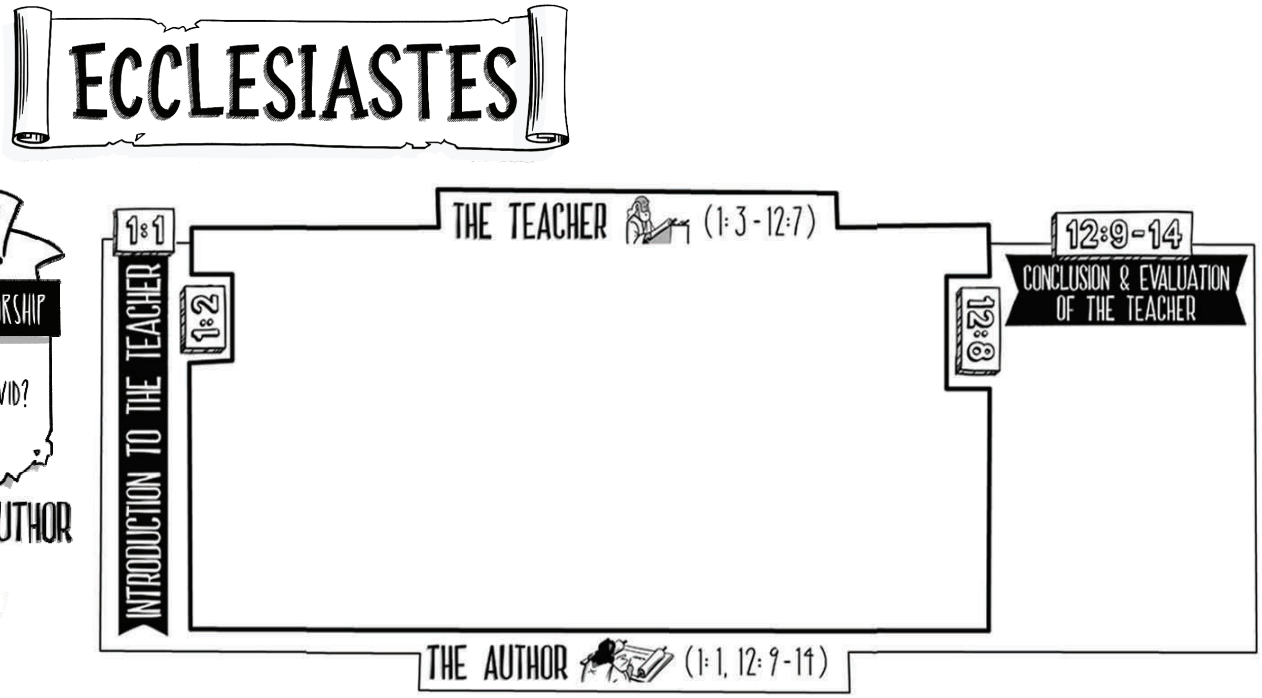
전도서 Ecclesiastes





1. 전도서 소개: 전도자와 저자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קֹהֶלֶת, *qohelet*)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를 뜻하는데, 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므로, 영어로는 교사로 번역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교사(전도자)는 다윗 왕의 아들 혹은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전도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다윗 혈통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또는 실제 후대의 이스라엘의 교사가 솔로몬 같은 사람을 학생으로 가정해서, 가르침을 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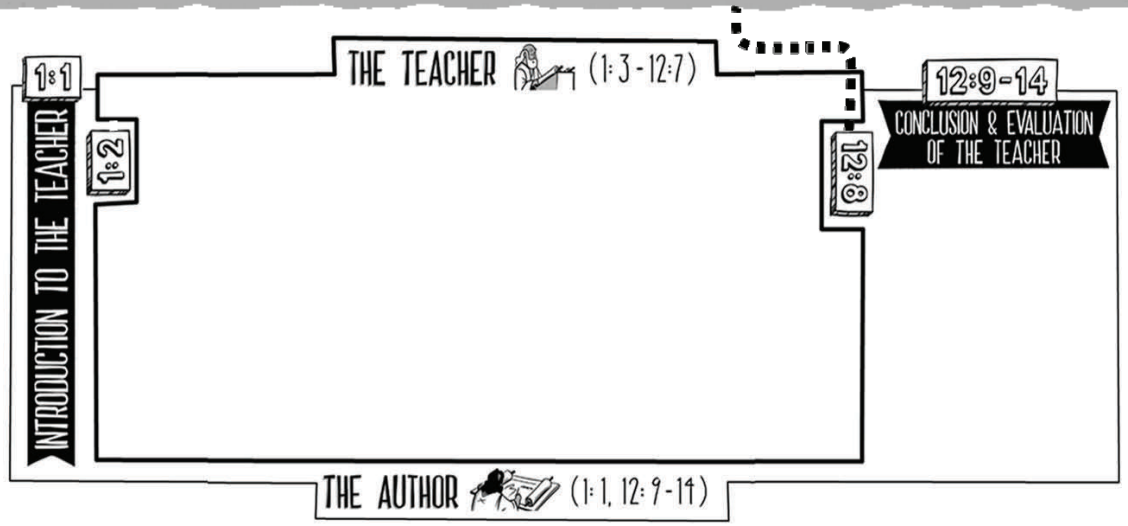
이중 어느 의견이 맞든 간에, 핵심은 이 책 속에서 교사(전도자)가 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는 익명의 저자와는 분명 다른 성격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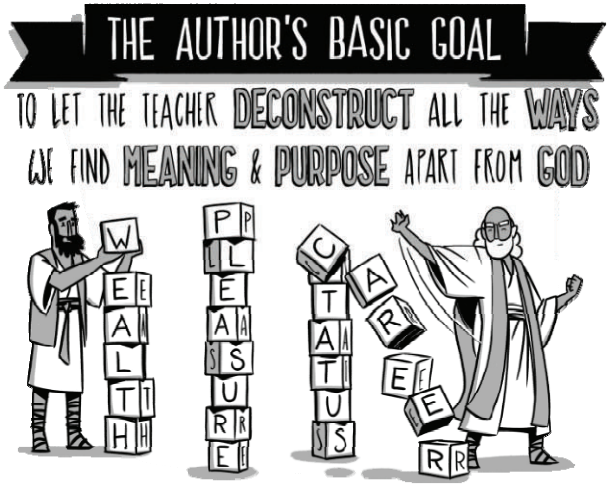
책 전체에서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자의 목소리로, 책의 맨 처음에 전도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책의 맨 마지막에서는 결론을 맺으면서 그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가 전하는 모든 메세지를 새겨 듣고, 잘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2.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전도자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전도자가 말하려는 기본 메세지를 처음과 끝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자료는 The Bible Project 의 성경 각권 요약 Read Scripture 동영상 대본을 번역하고, 도표 그림을 따와 편집한 것으로, 모든 판권은 The Bible Project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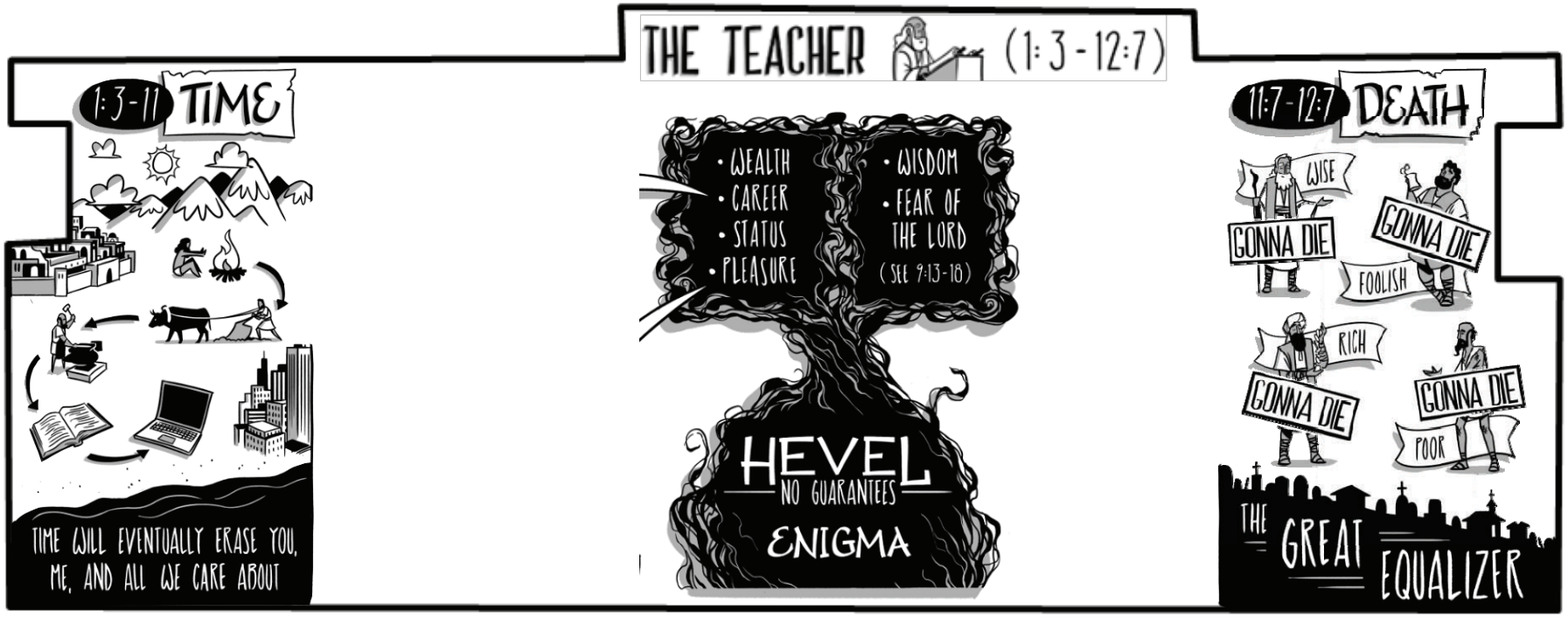


메시지는 "헤벨(הֶבֶל, *hevel*),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허무하다 meaningless"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본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벨(Hevel)"은 말 그대로 수증기 혹은 연기를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38회나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흘러가 (없어지)는 것인지 묘사합니다. 또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마치 연기처럼, 처음에는 잡힐 것 같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거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느닷없이 비극이 휘몰아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감에 넘치지만, 언제나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예측 불가하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빌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헤벨"입니다.

다소 우울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얘길 다 하는 걸까요? 전도서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워가려는 삶의 모든 방식들입니다. 전도자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중요성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실재가 무엇인지, 어려운 가르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서론과 결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 시간과 죽음 (1:3~11, 11:7~12:7)

이 두 부분에서는, 시간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전 생애를 일과 성취에 허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멈추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를 세워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정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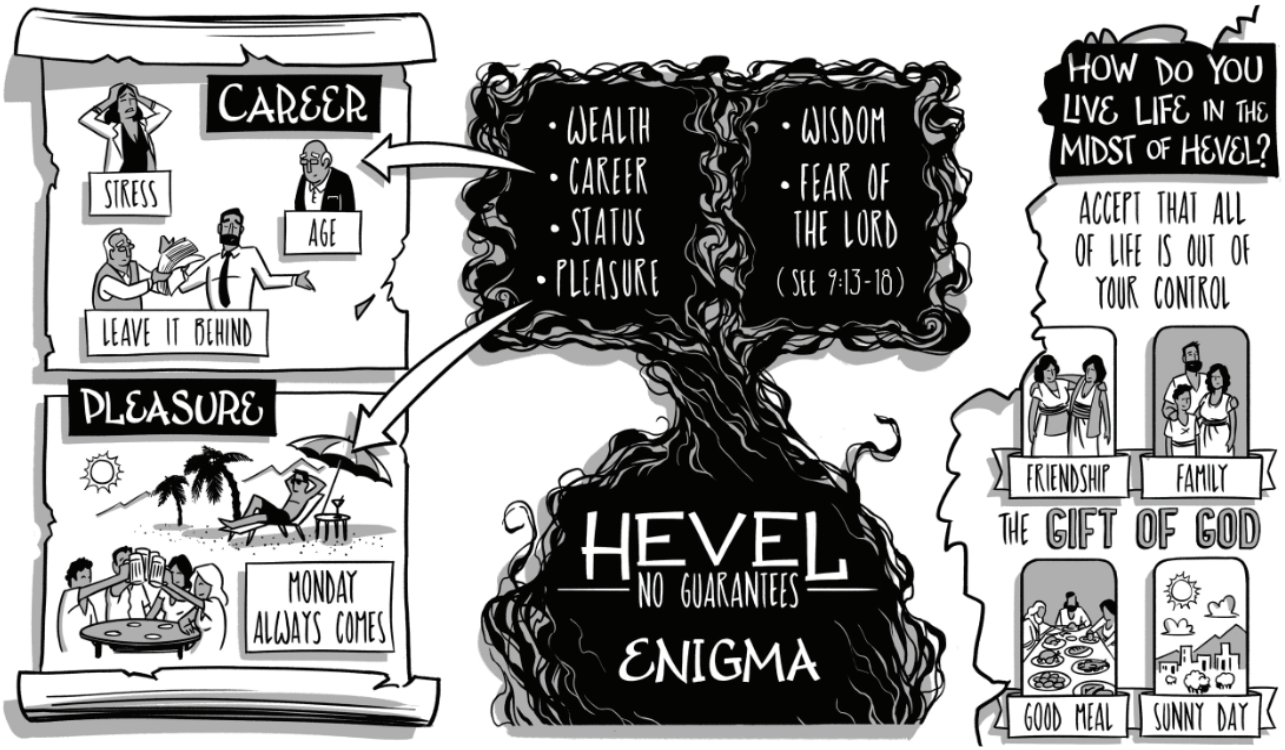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산은 우리보다 오래 전에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즉, 100년이 지나고 나면,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거나 우리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산은 여전히 그 곳에 있고, 바다는 계속해서 해변에 파도치고 있을 것이며, 해도 역시 뜨고 질 것입니다. 시간은 결국 저나 당신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지워 없앨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완전히 낙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전도자는 이 책 내내 죽음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책의 끝 부분에서 죽음이야말로 모두를 똑같이(/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일상의 모든 활동이 헛되게 만들고,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삼켜버립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집어삼킵니다. 선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헛되고, 헛된 삶에 대한 잘못 된 접근

시간과 죽음이라는 두가지 생각을 가지고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시간을 들이는 거짓 희망 즉, 재산, 직업, 사회적 지위, 쾌락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삶이 가치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고통 모든 걱정과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재물을 얻게 될 때 쯤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 그 부유함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가 되면, 정작 그들은 우리가 한 일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쾌락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여, 휴가와 주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 살지만, 월요일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헤벨(허무하다)",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너무 "헤벨"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잠언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삶은 진정으로 복이 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13-18).

그러나 문제는 지혜를 따라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 역시 "헤벨"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복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고 악한 자들이 오래 살고 번성합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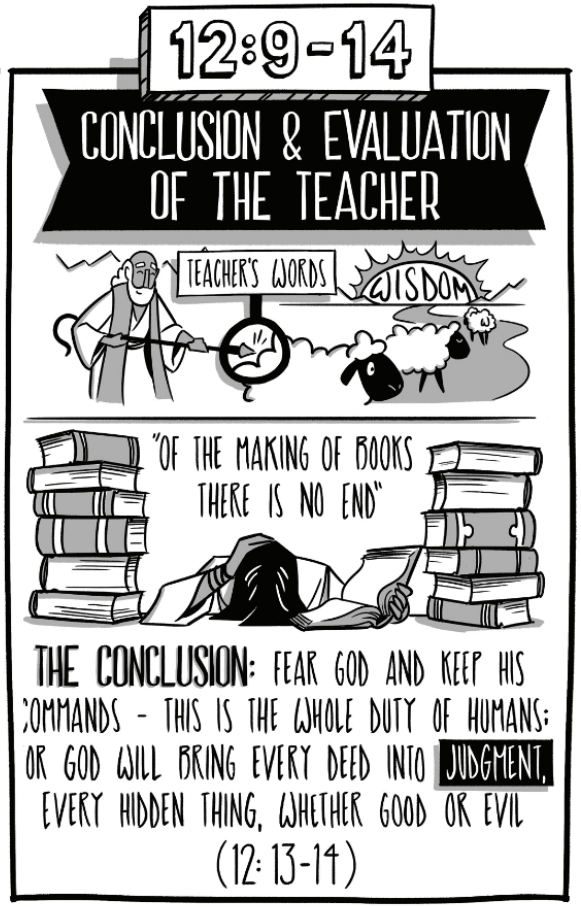
지혜가 언제나 덧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5. 헛되고, 헛된 삶에 대한 전도자의 권고

그렇다면 이 "헤벨" 속에서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전도자는 바로 이 점에서, 해 아래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즉,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 정도, 전도자는 암울했던 순간의 독백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 선물은 아주 단순하지만 소박한 즐거움으로, 친구, 가족, 멋진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단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삶이란 이러 이러 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조차 궁극적으로는 "헤벨"이고 "헤벨"이며, 해 아래 모든 것이 완전히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제 전도자의 말은 결론 다다릅니다. 결말에서 이 책의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저자 스스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는 전도자의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염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에 비유합니다. 막대기로 찌를 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지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 전도자가 우리를 찌른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여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서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고 애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니, 시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저자는 자신의 제안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12:13-14)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희망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시간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진정 의미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소망을 두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헤벨"을 없애주실 것이라 소망하며, 이 땅에 참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비록 삶이 수수께끼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하다 해도,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1:1
THE WORDS OF QOHELET, SON OF DAVID, KING OF JERUSALEM
HEBREW: ONE WHO GATHERS PEOPLE
"TEACHER"
DIFFERENT VIEWS ON AUTHORSHIP
• KING SOLOMON?
• ANOTHER DECENDANT OF DAVID?
• ISRAELITE TEACHER USING A SOLOMON-LIKE PERSONA
KEY-POINT: THE TEACHER IS DIFFERENT THAN THE AUTHOR
ANONYMOUS
TEACHER
ECCLESIASTES
"HEVEL, HEVEL, EVERYTHING IS UTTERLY HEVEL"
HEBREW: VAPOR, SMOKE → USED 38 TIMES
1 TEMPORARY, FLEETING
2 ENIGMA, PARADOX
BEAUTY
GOODNESS
JUSTICE
THE AUTHOR'S BASIC GOAL
TO LET THE TEACHER DECONSTRUCT ALL THE WAYS WE FIND MEANING & PURPOSE APART FROM GOD
WEALTH
PLEASURE
STATUS
CAREER
THE TEACHER (1:3-12:7)
1:1
INTRODUCTION TO THE TEACHER
1:2
1:3-11 TIME
TIME WILL EVENTUALLY ERASE YOU, ME, AND ALL WE CARE ABOUT
CAREER
STRESS
AGE
LEAVE IT BEHIND
PLEASURE
MONDAY ALWAYS COMES
• WEALTH
• CAREER
• STATUS
• PLEASURE
• WISDOM
• FEAR OF THE LORD
(SEE 9:13-18)
HEVEL
NO GUARANTEES
ENIGMA
HOW DO YOU LIVE LIFE IN THE MIDST OF HEVEL?
ACCEPT THAT ALL OF LIFE IS OUT OF YOUR CONTROL
FRIENDSHIP
FAMILY
THE GIFT OF GOD
GOOD MEAL
SUNNY DAY
11:7-12:7 DEATH
WISE
GONNA DIE
GONNA DIE
FOOLISH
RICH
GONNA DIE
GONNA DIE
POOR
THE GREAT EQUALIZER
12:8
12:9-14
CONCLUSION & EVALUATION OF THE TEACHER
TEACHER'S WORDS
WISDOM
"OF THE MAKING OF BOOKS THERE IS NO END"
THE CONCLUSION: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S - THIS IS THE WHOLE DUTY OF HUMANS: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EVERY HIDDEN THING, WHETHER GOOD OR EVIL (12:13-14)
THE AUTHOR (1:1, 12:9-14)
created by the Bible Project